

아일랜드에서의 일상적 사교활동과 사회집단 분화: 인류학적 사례연구¹

황 익 주

이 논문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집단의 분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인류학적 사례연구이다. 조사지인 니나 지방에서의 지배적인 담론에 따르면, 오늘날의 일상적 사교활동은 개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며, 과거와 같이 사회계층이나 종파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사회집단간의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제한적으로만 경험적 타당성을 지닐 뿐이며, 스포츠 활동 및 사교적 음주 활동의 양태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사회계층과 종파에 따른 분리가 실재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차별의 제도화된 수단들이 사라지고 난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같은 분리를 재생산시키는 주된 메카니즘은 사회집단에 따른 상이한 생활양식에의 취향들의 형성이다.

I. 서 언

이 논문에서는 아일랜드 공화국 (혹은 에이레 공화국)의 니나(Nenagh)라는 한 '타운(town)²'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상적 사교활동에 있어서의 사회계층(social class)과 종파에 따른 분화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니나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수도 더블린으로부터 서남서 방향으로 155km 가량 떨어져 있는 중서부 지방의 타운으로서, 인구는 약 5,500명이며 북부 티퍼래리 '카운티'(North Tipperary County)³의 행정중심지(capital)이다. 이 논문을 위한 자료들은 1989년 1월에서 1990년 7월까지 19개월에 걸쳐—그중 17

¹ 이 논문은 1992년 5월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사회인류학과에 제출한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Hwang 1992)의 일부를 가지고 재구성한 것이다. 재구성 작업에서는, 원래의 학위논문이 아일랜드와 많은 문화적 유사성을 지닌 영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써어졌던 데 반하여, 이 논문은 필자와 같은 한국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써어진다는 사실에서 연원하는 수정들이 상당 정도 가해졌다. 즉, 아일랜드의 문화적 양상 가운데 한국인에게 낯설고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들에 보다 많은 강조가 주어졌으며,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지리적·역사적 배경에 관련된 보충설명이 많이 덧붙여졌다.

² 아일랜드는 인구밀도 자체가 50명/km²로 EU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을 뿐더러, 매우 분산적인 취락패턴을 보이고 있는 까닭에, 아일랜드에서는 인구 수백명에 불과한 밀집취락들조차도 '타운'으로 간주된다. 이런 취락들의 주민들이 종사하는 경제활동도 '타운'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비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일랜드 사회의 맥락에서 '타운'이 지니는 이같은 의미를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읍'이나 '소도시'로 번역하지 않고 '타운'이라는 현지주민들의 어휘를 그대로 옮겨 쓰고자 한다.

³ '카운티'는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의 단위로서, 면적으로 보면 한국의 '군'보다는 크고 '도'보다는 작다.

개월은 니나에서 체류—필자가 수행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통하여 주로 수집되었다. 따라서 이하의 서술에 있어서 민족지적 현재(ethnographic present)를 이루는 시점은 1989-90년간이다.

사회계층 혹은 계급(social class)과 종파—특히 카톨릭/개신교—가 민족문제(nationality 혹은 ethnicity)와 더불어 비단 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근·현대사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갈등들의 중심축을 이룬 사회집단 분화(social group differentiation)의 차원들이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회집단의 분화가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적 생활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특히 국내에서는, 매우 빈약한 상태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상이한 사회계층 혹은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일상생활에서 서로 사귀는 것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서로간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표출하는지,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서로 원만한 듯하게 사귀고 지내면서 이면적으로는 대립감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 학문들 가운데서도 일상생활에서의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연구하는 일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학문이 인류학임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의 전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연구들의 대부분은 서구인 인류학자에 의한 비서구 사회와 문화의 연구가 되어 왔으며, 유럽을 포함한 서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1960년대 이후에 와서야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Cole 1977; Pina-Cabral & Campbell 1992 참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인류학자를 포함하여 국내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유럽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에 들어서의 일이란 사실 또한 유럽사회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 일천한 수준에 그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이 논문은 하나의 작은 사례연구를 통해서나마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유럽문화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1. 사회계층 및 종파에 따른 사회집단 분화의 역사적 기원

토질이 비옥한 평야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더러 아일랜드의 가장 큰 강인 샤논(Shannon)강이 근처에 있어, 니나는 고대 부족사회 시대에도 켈트족의 추장들이 3년마다 한번씩 모여 대규모 회의와 교역을 여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⁴ 그러나 니나가 항시적 밀집취락으로서의 ‘타운’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노르만족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데 이어 12세기 후반에 아일랜드를 정복하게 되면서부터였다. 노르만인 정복자들은 변방으로 쫓겨난 켈트족들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한 성채를 쌓았으며 이 성채를 중심으로 13세기 무렵부터 타운이 형성되었다(Gleeson 1982: 104). 그러나 니나 성의 소유자 이자 아일랜드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주의 하나였던 베틀러(Butler) 가문이 본거지를 다른 지방으로 옮기게 된 이후, 15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타운은 쇠퇴기를 맞이하였다.

⁴ 니나란 지명의 켈트 어원 자체가 회의(assembly) 혹은 장(fair)을 뜻한다.

(Gleeson 1982: 122-35).

니나 타운이 다시금 번성하게 되는 계기는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벌에서 주어졌다. 청교도 혁명의 여파 속에서 왕정복고를 노리던 찰스 1세를 지지하면서 아일랜드에 있던 카톨릭계의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크롬웰은 1649년 아일랜드 정벌에 나서 반란 세력을 격파하였다. 이어 그는 반란에 가담했던 웨트족 및 노르만족 영주들에게 토지들을 몰수하여 그를 도와 전쟁에 참가했던 부하들 및 그의 아일랜드 원정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잉글랜드인들에게 보상으로 분배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향후 200여 년에 걸쳐 아일랜드의 식민지 지배엘리트로서 군림하게 될 소위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지배층 (Anglo-Irish Ascendancy)’의 맹아가 형성되었다. 그 뒤 영국에서의 명예혁명의 여파 속에서 아일랜드에서는 카톨릭교도였던 제임스 2세의 왕위복귀를 지지하면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명예혁명의 결과 신교도들에 의해 제임스 2세 대신 왕으로 추대된 윌리암 3세(오웬지공 윌리암)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 정벌에 나서 반란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윌리엄 3세는 크롬웰이 토지를 몰수하고 난 뒤에도 남아 있던 카톨릭교도들의 토지를 추가로 몰수하여 신교도들에게 분배하였다. 이로써 아일랜드의 거의 모든 토지가 신교도들의 소유로 되었다. 이어 영국의 신교도 지배세력은 카톨릭 반란세력의 근거지 아일랜드로부터의 위협을 항구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으로 ‘정벌법(Penal Laws)’으로 불리우는 일련의 카톨릭 탄압법령들을 1695년에서 1709년에 걸쳐 제정하였다. 이 법령들의 내용은 아일랜드의 카톨릭교도들로부터 종교집회를 가질 권리, 토지소유권, 공직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무기와 말을 보유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것은 토지소유권의 박탈이었으며, 그런 만큼 가장 나중까지 법령이 지속되면서 카톨릭교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Moody & Martin 1984: ch. 13-15; O'Brien & O'Brien 1985: ch. 4-5; Foster 1988: ch. 8-10 참조).

니나 지방의 거의 모든 토지는 크롬웰의 정벌에 참가했던 소수의 군인들에게 분배되었으며(Murphy 1986: 22), 이들이 니나 지방의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지배층의 충핵을 이루는 가문들을 세우게 되었다. 이들은 잉글랜드에서 기원하였을 뿐더러, 여러 세대에 걸쳐 아일랜드에서 살고 난 후까지도 스스로를 잉글랜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신교도, 특히 아일랜드 성공회(Church of Ireland)의 신도로서 카톨릭교도인 아일랜드인들과는 구분이 되었다. 니나 지방에는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지배층의 구성원들이 내륙의 다른 지방들에 비해 많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그것은 비옥한 토지에 더하여 샤논강 하구에 형성된 거대한 천연호수인 더그호(Lough Derg) 주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고, 또한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지배층이 추구하던 잉글랜드 신사층⁵의 생활양식(English gentry life-style)의 빼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였다.

5 여기서의 ‘신사층’은, 향신층뿐 아니라 왕에 의해 작위를 부여받은 귀족들까지도 포함하여, ‘신사’(gentleman)라는 개념으로 요약되는 인간상을 지향하면서 유사한 생활양식을 취하던 유한계급을 총칭한다.

던 사냥⁶—특히 여우사냥—에 걸맞는 지형들이 니나 지방에 많이 갖추어져 있는 까닭이었다. 그들은 전형적인 유한계급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들은 1,000 내지 2,000 에이커의 영지(estate)를 소유한 대지주였으며,⁷ 그 가운데 집에 연하여 있는 200 내지 300 에이커만을 임노동을 고용하여 직접 경영하고—경영의 실무는 흔히 마름(bailiff)들에게 맡김—그 나머지 토지는 소작을 주었다. 그들 자신은 생산적 노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노동 자체를 천시하였다. 그들은 일반 대중들에 의해 흔히 ‘대저택(Big House)’으로 불리우던 가옥에 거주하였는데, 많은 수의 하인들을 고용하여 가사노동을 대신케 하고 자신들은 각종의 파티들을 집에서 개최하면서 폐적한 생활을 향유하였다. 이들 ‘대저택’들에는 각기 해당 가족에 의해 고유한 이름이 붙여져, 그 집이 해당 가족만의 사적인(private) 세계임을 단적으로 표현하였다.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 가문의 자녀들은 더블린이나 잉글랜드에 있는 기숙학교(boarding school)들에서 중등교육을 받았으며, 그 뒤에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영국군 장교로 복무하였다. 특히 영지를 상속받게 될 남자들의 경우에는 영국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가산의 상속에 즈음하여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니나 지방의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의 구성원들은 자기들끼리 사귀고 지내는 가운데 가문들간에 복잡한 통혼관계로 얹혀져, 지역사회 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는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의 사회집단을 이루었다.

이들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과 그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민들 및 농업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타운으로서 니나는 다시금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838년 티퍼래리 카운티가 북부와 남부로 분할되었을 때, 니나가 북부 티퍼래리의 행정중심지로 지정되면서 니나는 각종 행정시설을 갖춘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도 지니기 시작하였다. 니나가 행정중심지로 지정된 것 자체가 지방 행정 및 사법기구에서도 중추적 역할들을 맡고 있던 앵글로 아이리쉬 가문들이 니나 타운 주변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타운의 번성과 더불어 타운의 인구도 계속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1657년 275명에 불과하던 것이(Sheehan 1949: 3) 1841년에는 8,618명으로 증가하였다.⁸

6 이미 봉건시대부터 사냥은 유럽 각국의 지배계급의 구성원들이 가장 애호하는 스포츠, 그들의 유한계급적 생활양식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Bloch 1986: 제1부 제2장 참조). 특히 잉글랜드에서는 사냥개들을 풀어 여우나 사슴을 몰게 하고, 다시 그 뒤를 말을 탄 사람들이 추격하면서 사냥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산야를 누비며 달리는 사냥형태가 신사층이 가장 애호하는 스포츠로 되었다.

7 니나 지방의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지배층 가운데 최대의 지주이자 지위도 최고로 높았던 더넬리(Dunnalley) 남작의 가문은 전성기 때 무려 22,000 에이커를 소유하였다(Waller 1988).

8 그러나 1845년에서 1849년에 걸쳐 아일랜드 전역을 휩쓸었던 대기근(Great Famine)과 그 이후로 계속된 해외이민의 결과로 니나 타운의 인구는 195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야 경제적 번영의 덕택으로 해외이민이 크게 감소하면서 1980년대 중엽까지 다시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지난 약 150년간의 아일랜드의 전반적 인구추세와 일치하는 양상이다(*Census of Ireland, 1841-1986*).

19세기 후반 이후로 앵글로 아이리쉬 가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누리던 지배적 지위는 약화되어 갔다. 먼저, 1879년에서 1882년에 걸친 소위 ‘토지전쟁’(Land War) – 아일랜드인 소작인들이 앵글로 아이리쉬 대지주들에 대항하여 소작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의 중지, 나아가 직접생산자에로의 토지재분배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개한 투쟁 – 이 후로 영국 정부가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토지법’(Land Acts)들을 제정하여 점진적으로나마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지배층의 경제적 권력 기반이 잡식되어 나갔다(O’Brien & O’Brien 1985: ch. 6). 또한 행정 및 사법부문에서 이들이 누리던 특권적 지위도 약화되었다. 1898년의 지방정부 개혁에 따라 선거를 통해 카톨릭교도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여 지방 행정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앵글로 아이리쉬 가문들에게 배분되어 왔던 카운티 법정의 대배심원(Grand Jury)이자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로서의 특권도 아일랜드의 독립 직후 1924년에 시행된 사법제도 개혁의 결과로 소멸하게 되었다(Lyons 1973: 481).

신교도였던 앵글로 아이리쉬 가문들의 특권지배층으로서의 지위의 쇠퇴에 반비례하여 카톨릭교도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향상되어 나갔다.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서는 자작농으로 되었으며, 타운지역에서는 소상인, 장인, 하급공무원 등으로 되었고, 극소수이긴 하지만 변호사, 의사 등의 상급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대상인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독립 전야까지도 여전히 니나 타운에서 상급 전문직이나 은행원, 대상인,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주 등의 대다수는 인구비율 상으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던 – 1911년 현재 5% 미만(*Census of Ireland, 1911*) – 신교도들로부터 충원되고 있었다. 또 배후 농촌지역에서도 신교도들은 대지주가 아닌 경우에 조차도 부농이 많았으며, 농업노동자나 빈농은 거의 없었다. 요컨대, 독립 전야의 니나 지방의 사회계층의 위계구조는 여전히 신교도와 카톨릭교도 간의 불평등 관계를 크게 반영하고 있었다.

2. 1920-30년대: 사회계층 및 종파에 따른 차별의 공공연한 표출

일상적 사교의 양태에 관한 한, 니나 지방 주민들의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⁹ 속에 현재와 가장 큰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표상되고 있는 시기는 1920-30년대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일상적 사교활동의 여러 영역들에서 사회계층 및 종파에 따른 차별이 공공연히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일상적 사교의 영역은 회원전용 사교클럽(members-only social club)들이었다.

당시 니나 지방에는 니나 타운에 소재한 7개의 회원전용 사교클럽들이 있었다. 그 가

⁹ ‘사회적 기억’의 개념은, 하나의 사회집단이 과거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항들은 기억에 남는 반면 어떤 것들은 기억에서 지워지며, 또 기억되는 내용들 자체도 흔히 객관적 사실로부터 다분히 변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거에 대해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이 지니게 되는 이미지는 그 집단이 현재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이해관계에 걸맞도록 구성된다는 점을 포착하기 위해 구사되는 개념이다(Connerton 1989 참조. 또 인류학적 사례연구로는 Collard 1989; Nugent 1985 참조).

운데서 가장 배타성이 강한—동시에 사회적 기억 속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사교클럽은, 니나 지방의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들의 사교공간으로 1884년에 설립되었으며 니나 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던 ‘북부 티퍼래리 클럽(North Tipperary Club)’이었다. 클럽 구내에는 바(bar) 겸 식당, 당구장, 카드놀이방, 그리고 신문류들이 비치된 독서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회원들이 무시로 찾아와 클럽 구내에서 마주친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시며 담소하든가¹⁰, 당구나 카드 게임을 하든가, 혹은 신문을 읽으며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 남자들의 경우—모든 회원전용 사교클럽들은 남자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사냥을 포함한 몇몇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것과 더불어, 북부 티퍼래리 클럽에 나오는 일이 그들의 유한계급적 생활양식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들이 클럽 구내에서 만나 많은 시간을 더불어 지낼 상대들을 자신들이 용인할만한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들로 한정하기 위해, 클럽에는 신규회원 영입에 관한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신규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회원인 사람들 가운데 2명으로부터의 추천이 필요했으며,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가입신청을 다시 클럽의 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결정을 내림에 있어 주된 고려사항은 가입희망자의 사회계층 및 종교적 배경이었다. 19세기 말 아래로 계속된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 가문들의 경제적 쇠퇴와 구성원 수의 감소에 따른 클럽의 재정난에 대처하는 방편으로, 종전에는 신사층으로 한정되다시피 했던 북부 티퍼래리 클럽의 문호가 변호사, 의사, 고급공무원, 은행간부 등과 같은 상급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회원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점차 확장되었다. 하지만 신교도인 앵글로 아이리쉬 가문의 사람들이 여전히 클럽을 주도하고 있었던 만큼, 회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계층적 지위는 신교도나 카톨릭교도나에 따라 약간 달랐다. 즉, 똑같은 상급 전문직 종사자라도 신교도에게는 가입이 쉽사리 허용되는 반면, 카톨릭교도에게는 가입이 거부되기도 하였다. 이같은 회원 충원 방식의 결과, 1920-30년대의 북부 티퍼래리 클럽은, 비록 독립 이전에 비해 경제적 힘은 위축되었더라도 여전히 니나 지방의 주민 중에서는 가장 부유한 대지주들이었던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지배층 가문의 후예들이 회원의 다수를 이루면서, 거기에 상당수의 상급 전문직 종사자들—카톨릭교도도 포함—이 섞여 있는 회원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6개의 회원전용 사교클럽들도 사회계층과 종파라는 두 가지 사회문화 차원들의 맞물림을 반영하면서 전체 지역주민 중에서 특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에서 각기 회원들을 충원하고 있었다. 회원의 사회적 구성에 있어서 사교클럽들 간의 분화를 매개한 요소들은 클럽 구내에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종류, 구내에 갖추어진 시설의 질, 그리고 신규회원 가입에 관련된 규칙의 엄격성의 정도 등이었다. 이들 7개의 회원전용 사교클럽들의 병존이라는 현상은 1920-30년대의 일상생활에 담겨진 관념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¹¹ 즉,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회계층적 지위를 갖추고 있으

¹⁰ 클럽의 시설들 중에서 바가 가장 용도가 많은 시설이었으며, 이 점은 관인의 바(licensed-bar)를 갖춘 다른 3개의 사교클럽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며 또 어떤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고자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대해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다. 비록 필자가 당시의 문헌자료 등에 기초하여 분석해 본 클럽들의 실제 회원구성은 이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억 속에서 묘사되는 바의 사회계층 및 종파에 따른 분리의 양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지만¹², 이같은 태도는 비단 회원 전용 사교클럽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의 스포츠 클럽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 스포츠 클럽들도 회원 가입에 관련된 유사한 규칙들을 통해 특정한 사회계층 혹은 종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중에서 회원들을 충원하였다 – 나아가 일상생활의 도처에 삼투하여 있었다.

II. 일상적 사교활동에 있어서의 사회집단 분화양상

니나 지방에서 현재의 일상적 사교 양태는 행태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에 연관된 관념적 기조에 있어서도 앞서 서술한 2차대전 이전의 시기, 즉 1920-30년대와는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일부는 일찌기 독립 직전의 시기부터, 일부는 독립 이후로부터, 또 일부는 2차대전 이후로부터 시작되어, 아일랜드 전체 및 니나 지방의 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인구, 경제, 정치, 사회조직, 종교, 교육 등등 여러 영역에 걸친 사회변동 추세의¹³ 영향으로 생겨났다. 그런데 니나 지방에서 현재 지배적인 담론에 따르면, 그같은 사회변동의 추세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동질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모든 종류의 낡은 사회적 분열과 차별들은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상적 사교에 관해서는, 사회계층이나 종파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분리가 존재하던 과거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 와서는 사람들이 단지 개인적인 취향과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고 있다고 주장된다. 사람들은 스포츠 클럽이건 기타의 여가활동 단체건 자신들이 좋아하는 단체에 참여하며 각자가 선호하는 선술집들을 단골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고장에서는 누구나 다른 누구와도 차별없이 잘 사귀며 지낸다”, “오늘날은 완전히 민주화되었다”, “옛날의 속물주의적 태도들(snobberies)은 사라지고 없다”, 혹은 “이제 이 고장은 진정으로 하나의 ‘공동체(community)’를 이루고 있다” 등등의 말을 사람들은 흔히 하고 있다. 현지조사의 전 기간을 통해서 필자와 특정의 주민과의 친밀관계(rapport)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동안에 필자가 그 인물로부터 접하는 반응은 거의 예외없이 이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친밀관계가 발전하여 그가 현재에도 존재하는 사회적 분리 혹은 차별

II 7개의 사교클럽 중 2개는 1920년대 초에 새로이 설립되었다.

12 예컨대, 북부 티퍼래리 클럽에 대해 사람들은 카톨릭교도는 절대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신교도인 상급 전문직 종사자라 할지라도 극소수만이 가입이 허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의 회원구성은 1930년대 초에 이미 상급 전문직 종사자들이 클럽회원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카톨릭교도였다.

13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Hwang(1992: ch.2) 참조.

의 실태에 관해 필자에게 토로하는 경우에조차, 대개 그것은 기나긴 영국 식민지 시절로부터 남겨진 유산이며 아일랜드 사회가 급속히 근대화됨에 따라 곧 사라져 버릴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 절에서는 현재 니나 지방에서의 일상적 사교의 양태에 관한 위와 같은 지배적 인식이 얼마나 경험적 사실과 합치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상적 사교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고찰될 것들은 각종 스포츠 클럽과 선술집(pub) 및 개인 가정(private home)에서의 사교적 음주(social drinking)이다.¹⁴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주민들 사이에 지배적인 인식이 부분적으로만 타당할 뿐, 여전히 사회계층과 종파에 따른 일상적 사교에서의 분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실재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1. 스포츠 활동

니나 지방에서는 현재 약 30가지의 상이한 종류의 스포츠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스포츠 클럽들이 니나 타운 및 배후 농촌 지역에 조직되어 있다. 그런데 스포츠의 종목에 따라 클럽들이 회원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에서 큰 편차가 있다. 예컨대, 골프 클럽은 니나 타운과 그 배후 농촌 지역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반면, 비슷한 지리적 범위 내에 축구 클럽은 10여 개가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니나 지방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포츠 클럽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성격에 관한 일반화를 제시하기는 자극히 힘들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의 분석은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여 왔거나 사회계층 및 종파에 따른 사회집단의 문화와 긴밀히 연관되어져 왔던 스포츠 활동 및 클럽들에 한정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해당 스포츠 클럽들의 사회계층 및 종파에 따른 회원구성의 분석을 통해 클럽의 사회적 성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회계층과 종파라는 사회집단 문화의 두 차원에 따라 나뉘어지는 사회집단들의 범주들을 각기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지를 밝혀 두기로 한다. 먼저 종파의 차원에서 나뉘어지는 카톨릭교도와 신교도는 주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분법을 그대로 따를 것이다. 즉, 개개인의 종교활동에의 참여 정도나 신앙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족 배경에 따라 카톨릭교도와 신교도로 구별하는 것이다. 종파에 따른 문화와는 달리 사회계층에 따른 문화에 대해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분석적 모델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적 모델을 구성하는 데는 직업 및 고용상의 지위라는 객관적 규준도 고려해야 하지만, 나아가 ‘계층의 언어(language of class)’, 즉 사회계층의 문화에 연관된 담론들이 사용되는 맥락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가 사람들의 일상적 사교행태에 사회계층이라는 요소가 과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 하는 점인데, ‘계층의 언어’는 바로 행위주체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을 더

¹⁴ 2차대전 이전에 일상적 사교활동의 중요한 영역이었던 회원전용 사교클럽들은 2차대전의 여파 속에서 소멸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초에 이르면 모두 사라졌다.

불어 사귈 만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여 니나 지방의 사회계층 구조상의 범주들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1. 상류층 ("upper class")¹⁵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 및 이들과 독립 이전부터 일상적 사교를 가졌던 극소수 카톨릭 신사층 가문의 후손들

2. 중산층 ("middle class")

1) 중산 상층 ("upper middle class")—상급 전문직(예컨대, 의사, 변호사), 상급 경영직, 피고용자가 딸린 사업체 소유주

2) 중산 하층 ("lower middle class")—하급 전문직(예컨대, 교사, 경매인), 하급 경영직, 피고용자가 없는 사업체 소유주

3) 농부층 ("farmers")—임노동을 겸하지 않고 농업만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들

3. 노동자 계층 ("working class")

1) 노동자 상층 ("upper working class")—숙련 육체노동자, 약간의 농지도 소유한 반숙련 및 미숙련 육체노동자

2) 노동자 하층 ("lower working class")—반숙련 및 미숙련 육체노동자¹⁶

(1) 사냥클럽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냥, 특히 여우사냥은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이 가장 애호한 스포츠 활동으로서 그들의 생활양식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사냥에 대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신사층의 열정적 애호로부터 말파 개,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사냥의 대상인

¹⁵ 이 범주는 아일랜드에 관한 기존의 사회학적 연구들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었던 범주이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이들 연구들이 현재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공식통계 자료만을 가지고 사회계층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보게 되면 이 범주는 중산 상층과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지의 많은 주민들은 옛 신사층 가문의 후손들을 '상류층'으로 칭하면서 중산 상층과 구분하고 있다. 이때 사람들이 구분의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은 이들의 생활양식, 행동의 태도(manner), 말씨(accent)—이들은 지역방언이 아니라 잉글랜드 사립학교(public school)의 말씨를 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문배경(즉, 이들이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지배층의 후손이라는 사실 자체)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들이다. 이는 니나 지방에서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지배적 사회집단으로 존재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이 사회계층에 대한 주민들의 관념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 주는 단서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이들을 별도의 계층범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계층의 언어를 고려한 테서 나온 것이다. (사회계층의 연구에서 계층의 언어가 지닐 수 있는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Stedman-Jones(1983), Furbank(1985), Marwick(1990), Corfield(1991), Crossick(1991) 등을 참조.)

¹⁶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분석적 절차에 대해서는 Hwang(1992: 158-178) 참조.

여우, 사슴, 기타의 야생동물까지도 포함한 온갖 동물에 대한 애정이 생겨났다.¹⁷ 특히 말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경마, 승마, 폴로 등의 스포츠에 대한 열광적 애호로 나타나고 있으며,¹⁸ 그들의 언어생활에서도 말에 연관된 표현들이 인간 사회에 관련된 묘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¹⁹

1920-30년대에 니나 지방에는 ‘니나 사냥클럽(Nenagh Harriers)’이라는 명칭의 사냥클럽이 있었다. 니나 지방의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은 이 클럽 및 보다 유서깊은 인접 ‘오몬드 여우사냥클럽(Ormond Foxhounds)’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11월 초부터 이듬 해 3월까지 지속되는 사냥시즌 동안에는 한 주일에 니나 클럽과 더불어 2회, 오몬드 클럽과 더불어 3회—두 클럽은 요일을 달리하여 사냥행사를 가짐으로써 회원들이 사냥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사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 가문의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은 보통 일주일에 3-4회씩은 사냥에 나서 하루나절을 보내었다. 하지만 회원전용 사교클럽이었던 북부 티퍼래리 클럽에서와 마찬가지로 1920-30년대에는 이미 니나의 사냥클럽에 신사층 이외의 사람들도 상당수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상급 전문적 종사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북부 티퍼래리 클럽과 같지만, 부농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는 달랐다. 이는 한편으로 부농들의 경우 타운 거주자들에 비해 사냥용 말을 기르기가 용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의 소유토지가 식민지 시대에 비해 엄청나게 축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신사층의 소유토지만으로는 사냥용 공간이 부족해졌으며, 따라서 쫓기는 여우가 부농 소유의 토지 안으로 달아났을 때 사냥개들과 말을 탄 사람들의 무리가 계속해서 여우를 쫓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부농들에게 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니나 사냥클럽은 2차대전의 여파 속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계속된 앵글로 아이리쉬 가문들의 구성원 수의 감소—2차 대전 중에 영국군 장교로 참전하였던 젊은 층의 상당수가 전쟁 중에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전후에 아일랜드로 돌아오는 대신 영국에 정착하였으며, 2차대전 이후에도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뒤 영국에 정착해 버린 사람이 많았다—로 인하여, 클럽의 현재 회원수 뿐만 아니라, 장래의 잠재적 회원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재정적 곤경—사냥클럽은 수십 마리의 사냥개를 기르고, 그 개를 돌보는 일을 전담할 사람을 고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지출을 요한다

17 잉글랜드 뿐아니라 아일랜드에서도 신사층은 동물보호협회들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18 ‘로얄 애스콧(Royal Ascot)’이나 ‘그랜드 내쇼널(Grand National)’ 등과 같은 경마대회는 왕실을 포함한 영국 상류사회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스포츠 행사로 유명하다.

19 가문 배경이 타월한 사람을 가리켜 ‘종마(thoroughbred)’라고 칭하는 것은 관용적 표현이 되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예이다. 이에 반하여, 보잘 것 없는 가문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해 “털이 많은 다리를 가졌다(He has a hairy leg)”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일종의 은어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예이다. 이는 좋은 승마용 말일수록 미끈한 종아리를 가진 데 반해, 짐을 끄는 말은 종아리 부분에 긴 털이 많이 나 있음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에 대처하기 위하여 클럽은 인근의 또 다른 소규모 사냥클럽을 합병하면서 명칭도 ‘북부 티퍼래리 여우사냥클럽(North Tipperary Foxhounds)’으로 바꾸게 되었다. 나아가 클럽의 문호도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 가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왔으며, 특히 농부들이 전체 회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왔다.

그리하여 현재의 클럽 회원들은 자기들의 클럽이 다른 지방의 극히 ‘귀족적인’ 클럽들과는 반대로 매우 서민적인,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참여하는 클럽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니나 사냥클럽 또한 과거에는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의 회원구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회원들의 자기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별표 1>에서 보듯이 현재의 클럽 회원 중에는 노동자계층이 한 명도 없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사냥은 여전히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회비 자체는 가족회원이 연간 55파운드, 개인 회원이 40파운드 정도로 오히려 골프클럽보다도 싸지만, 사냥용 말을 구입하고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노동자계층의 재정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회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중산 상층과 농부들이다. 농부들의 경우 정확한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부농들로서 엄격한 계층 구분을 취한다면 역시 중산 상층의 범주에 속할 사람들이다.

또한가지 주목할 점은 상류층의 높은 비율이다. 회비를 내는 정회원의 비율 12.8%만 하더라도, 지역 사회의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0.5%에도 못미침을 고려한다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다. 뿐만 아니라 앵글로 아이리쉬 가문의 나이든 사람들은 클럽의 정회원으로서 말을 타고 사냥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도 클럽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냥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즉 사냥개와 사냥꾼의 무리가 자기들의 목초지 내에서 여우를 쫓아다닐 수 있도록 기꺼이 빌려주고 있다. 이들은 사냥이 니나 지방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젊었을 때는 너무나도 사냥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이 그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 이 밖에도 일부 부농과 농업관계 기업가들 가운데 실제로 사냥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클럽을 재정적으로 혹은 자기 토지에서의 사냥 허락을 통해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또한 자신들도 ‘말을 매우 애호하는 사람들(horsey people)’로서 말과 관련된 온갖 스포츠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클럽의 회원 구성을 종파별로 분석해 보면 약 4분의 1이 신교도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니나 지방의 전체 인구에서 신교도의 비율이 2% 남짓함을 고려한다면(*Census of Ireland, 1981*) 대단히 높은 비중으로,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 가문의 후손들의 참여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비록 회원수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사냥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누리는 인기를 반영하여 –사냥행사가 벌어질 때는 그 일대의 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냥의 장관(spectacle)을 구경하러 나온다 – 사냥클럽이 개최하는 행사 중 연례 ‘성 스티븐의 날(St. Stephen’s Day, 12월 26일)’ 사냥행사나 사냥 시즌이 끝난 직후에 열리는 ‘장애물 넘기 경마대회(point-to-point races)’는 일종의 지방축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2) 요트클럽

니나 지방에는 인근의 더그호에서의 요트항행(sailing)과 낚시질에 관여하는 8개의 보트클럽이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 1836년에 창립되어 단연코 가장 역사가 오래고 위신이 높고 규모도 제일 큰 '더그호 요트클럽(Lough Derg Yacht Club)'의 회원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클럽은 니나 지방의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을 위한 여름철 스포츠 활동의 장의 하나로서 창설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앵글로 아이리쉬 가문들의 경제적 쇠퇴와 구성원 수의 감소에 따라 요트클럽도 문호를 조금씩이나마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1920-30년대에는 이미 회원의 상당수가 카톨릭교도를 포함한 상급 전문직 종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 클럽은 마침내 일반 서민층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의 회원 가운데는 노동자계층이나 소농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클럽 회장직도 카톨릭교도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클럽 회원들은 자기네 클럽이 다른 지방의 요트클럽들과 달리 매우 '민주적인' 클럽이라고 흔히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의 회원구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같은 자기 이미지는 제한적으로만 타당성을 지님이 드러난다.

<별표 2>에서 보듯이 회원의 3분의 2가 상류층 및 중산 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할 만한 점은 아직 니나 지방에 살고 있는 옛 신사층 가문의 후손들이 모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사냥클럽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자계층이 낮은 비율이나마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은 생계활동의 성격도 조금은 떤 낚시질만 할 뿐이다. 이들이나 역시 낮은 비율의 소농층 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의 주된 동기는 클럽활동을 매개로 한 다른 회원과의 사교이기 보다는 가족회원의 경우 50파운드, 개인회원의 경우 45파운드의 회비만 내면 클럽의 보트창고를 일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파에 따른 회원 구성을 보면, 니나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 가운데 신교도의 비율이 24.3% (111명 중에 27명)로서²⁰ 니나 지방의 전체 인구 구성상의 비율을 염청나게 능가하고 있다. 이는 곧 요트클럽이 니나 지방에 거주하는 신교도들을 위한 주요 스포츠 활동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트클럽에 관해 끝으로 한가지 지적할 것은, 클럽 활동이란 것이 극히 개인주의적이란 점이다. 즉, 각 회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클럽 보트창고에 있던 자기네 보트를 꺼내 호수로 나갈 뿐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계층적 지위에서 큰 격차가 있거나 혹은 종파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요트클럽의 회원으로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반드시 그들이 서로에 대해 사귐의 상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클럽 안의 클럽(clubs within club)'의 현상, 즉 회원 중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클럽에서의 스포츠 활동을 매개로 사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클럽의 인원 규모가 크다는 사실, 면 타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이러한 현상의 발생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²⁰ 여기서 니나 지방 거주자로 분석을 한정한 것은, 요트클럽의 전체 223명의 회원 가운데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 더블린이나 기타 아일랜드의 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 등을 포함, 니나 지방 밖에 사는 사람들이 91명이나 되는데, 이들의 종파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3) 테니스클럽

‘니나 잔디테니스 클럽(Nenagh Lawn Tennis Club)’은 1885년에 창설된 이래 더그호 요트클럽과 더불어 니나 지방의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의 여름철 스포츠 활동의 장으로서 기능하였다. 1920년대 말까지 니나 지방에는 테니스클럽이 하나밖에 없었다가, 1929년에 또 하나의 테니스클럽이 창설되었다. 이즈음에는 이미 요트클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니나 잔디테니스클럽’의 회원 가운데 카톨릭교도인 상급 전문직 종사자 및 은행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새로 생긴 테니스클럽에는 신교도 소상인들도 약간이나마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자를 ‘신교 테니스클럽’, 후자를 ‘카톨릭 테니스클럽’이라고 흔히 불렀다. 그러다가 2차대전의 발발로 ‘니나 잔디테니스 클럽’의 주축을 이루던 앵글로 아이리쉬 가문의 젊은이들이 영국군으로 참전함에 따른 클럽 운영의 곤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 클럽의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젊은이들이 종전 후에도 귀향하지 않음에 따라 1950년대 초에 두 클럽은 아예 합병을 하게 되었다. 그 아래로 니나 테니스클럽은 사냥클럽이나 요트클럽보다도 심한 회원 구성상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즉, <별표 3>에서 보듯이 현재의 클럽 회원 중에는 상류층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이다. 반면 노동자계층의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의 클럽 회장 자신이 소농 겸 숙련 육체노동자이다. 클럽 회원들을 포함, 니나 주민들은 이같은 변화를 역시 ‘민주화’, ‘계층에 따른 분리의 소멸’ 등으로 파악하지만, 회원의 구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그같은 파악이 제한적으로만 타당함을 말해 준다. 우선, 클럽 회원의 90%가 도시중산층, 즉 중산 상층과 중산 하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회원-연회비 55파운드-과 개인회원-연회비 36파운드-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난다. 즉, 중산층이 가족회원의 거의 절반을 이루는 반면에 노동자계층은 대부분이 개인회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테니스가 가족스포츠로서 기능하는 것은 주로 중산 상층 사이에서라는 점을 의미한다. 끝으로 종파에 따른 회원구성을 보면 신교도는 2명의 개인회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 구성상의 비율과 대략 일치하는 것이다.

(4) 골프클럽

‘니나 골프클럽’(Nenagh Golf Club)은 1929년에 창립되었다. 앞에 서술한 스포츠 클럽들과는 달리 골프클럽은 창립 때부터 중산층이 주도하였다. 초창기에는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의 일부 구성원들이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클럽의 핵심 간부로서 활동하였던 인물은 1명밖에 없었다. 니나 골프클럽은 1960년대 이래로 회원수의 폭증을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132명의 가족 회원을 포함, 644명이 가입해 있는 니나 지방의 단일 스포츠 클럽으로는 단연코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클럽이다. 앞에 서술한 스포츠 클럽들과 유사하게 니나 골프클럽의 회원들도 자기네 클럽이 다른 지방의 골프클럽들에 비해, 또 클럽 자체의 과거 모습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고 ‘민주화’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클럽 회원 중에 보통의 농부나 소상인 심지어 공장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음을 그 증거로 든다. 그러나 <별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회원의 압도적 다수는 도시중산층이며, 노동

자계층 출신의 회원 중에 가족회원—연회비 210파운드—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개인회원—연회비 170파운드—이다.²¹ 한편 표에 나타난 유일한 상류층 출신의 회원은 클럽 창립기에 핵심간부로 봉사한 공로로 ‘명예회원’으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종파별 구성을 보면, 신교도는 가족회원의 1.7%(2명), 개인회원의 1.2%(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트클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클럽의 규모가 큰 데다가 골프가 행해지는 방식 자체가 매우 개인주의적이어서—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이 사전에 예약하여 파트너를 이루어 함께 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상이한 계층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계층간에 골프를 매개로 사교가 이루어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클럽 안의 클럽’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골프클럽에는 클럽하우스 안에 관인의 바와 식당이 있어서 회원들은 골프를 치고 난 후 파트너와 더불어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다.

(5) 웰트스포츠클럽

19세기 말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문화적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민속 스포츠의 부활과 보급을 통해 기나긴 영국의 식민지 통치로 인해 상실되어져 가는 아일랜드의 민족정기를 되찾고자 설립된 것이 ‘웰트스포츠협회(Gaelic Athletic Association, GAA)’였다. 웰트스포츠협회는 아일랜드 민족어의 회복운동을 펼쳤던 ‘웰트동맹(Gaelic League)’과 쌍벽을 이루면서 아일랜드의 문화적 민족주의 운동을 20세기에 들어서까지 계속 주도하여 왔다. 웰트스포츠협회에서 관장하는 스포츠에는 ‘헐링(hurling)’, ‘웰트식 축구(Gaelic football)’, ‘카모기(camogie)’, ‘웰트식 핸드볼(handball)’ 등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헐링과 웰트식 축구는 아일랜드에서 행해지는 모든 스포츠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로 쌍벽을 이룬다.²² 조사자인 나나를 포함하는 티퍼래리 카운티에서는 헐링이 웰트식 축구보다 월등히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헐링과 웰트식 축구가 성공리에 부활되는 데에는, 이들 스포츠에서의 경쟁이 카톨릭 교구(parish)를 단위로 조직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출생한 교구나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교구를 위해서만 선수로 뛸 수 있게 규칙이 정해졌는 바,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개인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였던 카톨릭 교구를 단위로 스포츠 경쟁을 조직함으로써 사람들은 쉽사리 이들 스포츠에 열광하게 되었던 것이다. 카톨릭교회 측에서도 이들 스포츠 경쟁

²¹ 골프클럽에는 정회원인 가족회원과 남자 개인회원 외에도 다수의 준회원들이 있는데, 여자 개인회원—연회비 105파운드—이 그에 포함된다. 여자에게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아일랜드의 모든 골프클럽들에 잔존하는 관행이라고 한다.

²² 두 스포츠는 모두 15인제 구기경기로서, 축구의 골대와 럭비의 골대를 붙여 놓은 것 같은 모습의 골대 안으로 공을 넣어 보내서 득점—골대의 두 부분 중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아래쪽으로 넣으면 3점, 그 위쪽으로 넣으면 1점을 각기 득점—을 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웰트식 축구가 일반 축구공과 같은 공을 사용하는 반면, 헐링은 야구공과 비슷한 공을 ‘헐리(hurley)’라고 불리는 단단한 스틱으로 치게 되어 있다.

이 목회 활동에 매우 유익함을 이내 깨달았으며 실제로 많은 사제들이 켈트스포츠협회에서 중심적 역할들을 담당하였다. 반면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이념 및 카톨릭교회와의 연관으로 인하여 켈트스포츠는 신교도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스포츠로 되었다.

카톨릭교도들은 켈트스포츠를 가리켜 흔히 ‘대중의 스포츠(people's sports)’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1920-30년대까지만 하여도 켈트스포츠를 행하던 사람들은 카톨릭교도 가운데서도 ‘서민층(ordinary folks)’에 속하는 사람들, 즉 농부들과 소상인, 자영장인, 그리고 육체노동자들에 거의 한정되었다. 상급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은행원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등은 켈트스포츠에 별로 호감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로 사회적 변동의 영향 속에서 켈트스포츠는 모든 계층의 카톨릭교도들에서 고르게 애호를 받는다는 의미의 ‘대중의 스포츠’로 변모하여 왔다. 즉, 이제까지 살펴본 사냥클럽, 요트클럽, 테니스클럽, 골프클럽들의 회원 구성이 사회계층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보다 많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과는 반대로, 켈트스포츠클럽들은 사회계층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다 많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회원구성이 변화하여 온 것이다. TV에서의 켈트스포츠 경기의 빈번한 방영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니나 켈트스포츠클럽의 경우 현재는 <별표 5>에서 보듯이 중산 상층의 사람들이 전체 회원수의 상당 비율, 특히 비선수회원의 6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1920-30년대에는 회원 중에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는 민족주의 이념에 남달리 투철했던 인물로 널리 알려진 한두 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²³

그런데 <별표 5>는 회비를 납부한 성인회원의 명단을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난 회원수 자체는 켈트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지는 비중을 실제보다 크게 낮게 반영하고 있다. 우선 클럽에 속한 선수만 하더라도 성년층만 70-80명이어서, 명단에 나타난 것은 그 중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 회비 납부자 명단에 포함된 30명 가량의 클럽운영위원회—이는 골프클럽의 운영위원회보다도 많은 수이다—을 제외한 비선수 회원과, 3파운드에 불과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명부에는 올라 있지 않으나 클럽팀의 경기가 있을 때면 참관하러 나오는 니나 교구주민 사이에는 사실상 켈트스포츠 활동에의 참여양태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켈트스포츠, 특히 헐링은 니나 지방에서 행해지는 각종 스포츠 가운데 단연코 가장 많은 관중이 찾아오는 스포츠인 것이다.

한편 종파에 따른 구성을 보면 켈트스포츠는 여전히 전적으로 카톨릭교도만의 스포츠로 남아 있다. 니나 지방의 10여 개의 카톨릭 교구들 가운데 그 지리적 경계 내에 거주하는 신교도의 비율이 다른 교구들에 비해 훨씬 높은 한 교구에서 최근에 한두 명의 신교도 농부가 선수로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는, 니나 교구를 포함한 다른

23 <별표 5>에서의 농부층의 낮은 비율은 니나 교구의 주민 대부분이 타운거주자인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배후 농촌지역의 클럽들에서는 농부들이 회원의 주축을 이룬다. 켈트스포츠에 깃들여진 아일랜드의 민족정기는 농부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교구들에서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신교도 웨일트스포츠 선수도 배출된 적이 없다.

(6) 럭비클럽

19세기 중엽 종래의 잉글랜드 민속축구(folk football)로부터 현대적 축구와 럭비가 분화되어 나온 이래로 럭비는 영국의 사립 기숙학교(public boarding school)들에서 학생들의 품성도야(character building)를 위한 가장 적절한 스포츠의 하나로 널리 장려되었다 (Hargreaves 1986: 38-40). 이 점은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리하여 이를 기숙학교 출신의 신사층, 상급 전문직 종사자, 은행원, 그리고 대학생 등이 각 지방의 럭비클럽들을 주도하게 되었다. 니나 지방의 경우 ‘니나 오몬드 럭비클럽(Nenagh Ormond Rugby Football Club)’이 창립된 것은 1884년이었지만, 1908년에서 1924년에 걸친 시기 동안에는 사실상 해체되었다가 1924년 말에 부활되었다. 부활된 니나 럭비클럽에서도 선수층의 대다수는 기숙학교 출신들에서 충원되었다. 그러나 니나의 작은 인구 규모는 더블린이나 다른 큰 도시들에서처럼 기숙학교 출신자 중에서만 선수를 충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카톨릭 서민층 사이에서 부족한 선수를 충원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웨일트스포츠협회가 소위 ‘외국 스포츠(foreign games)’로 분류한 스포츠들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내렸던 금지조치(ban)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필요하다.

이 금지조치의 표적이 된 ‘외국 스포츠’들이란 럭비를 포함, 크리켓, 하키, 축구 등이었는데, 영국에서 기원한 이들 팀스포츠들은 영국인의 정신과 너무나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스포츠에 탐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일랜드인으로서의 민족적 기상을 상실하고 영국인에 동화되어 가게 된다고 웨일트스포츠협회는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웨일트스포츠협회는 이를 ‘외국 스포츠’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내림으로써, 이를 스포츠의 유혹에 아일랜드인들이 빠져드는 것을 방지코자 하였다. 징계의 내용은 이를 스포츠에 ‘참가’—단순한 구경도 참가로 간주되었다—한 정도에 따라, 이후 웨일트스포츠에의 참가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는데, 경고에서부터 일정기간의 출전금지, 나아가 웨일트스포츠로부터의 영구 배제에 이르는 경중의 편차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헐링이 강하고 대중적 인기가 높은 스포츠였던 니나 지방의 맥락에서 이러한 금지조치의 존재는, 니나 럭비클럽이 부족한 선수들을 카톨릭 서민층 가운데서 충원할 수 있으려면 클럽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주어야 함을 뜻하였다. 그리하여 럭비클럽은 웨일트스포츠를 포기하고 럭비를 택하는 카톨릭 서민층을 다른 스포츠 클럽이나 사교클럽들에 비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로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럭비클럽은 비록 기숙학교 출신의 상급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도하기는 하였지만, 1920-30년대의 시기로서는 이례적으로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에서 카톨릭 육체노동자에 이르는 종파 및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집단 분화상의 모든 범주들이 회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스포츠 클럽이 되었다.

니나 럭비클럽이 지난 이같은 면모는 2차대전 이래의 사회적 변동의 영향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별표 6>은 비록 상류층이 회원에서 사라지기는 했지만, 노동자계층에

로의 클럽의 문호는 훨씬 개방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여기에는 웰트스포츠협회의 '외국 스포츠'에 대한 금지조치의 폐지—공식화된 것은 1971년이다—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종파에 따른 회원 구성을 보면, 10.3%가 신교도이며, 특히 선수들 중에는 6분의 1이 신교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에도 럭비는 신교도와 카톨릭교도가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팀스포츠로 남아있다.

(7) 축구클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구도 럭비와 같이 웰트스포츠협회에서 '외국 스포츠'로서 금지하였던 대상이다. 니나 지방에 축구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0년대 초였으나, 당시의 클럽 창립 시도는 이내 실패로 돌아갔으며 본격적으로 축구가 퍼져 나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 즉 웰트스포츠협회의 금지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던 무렵의 일이었다. 이후 축구는 급속도로 대중들 사이에 인기를 얻어 나갔으며, 현재는 니나 지방에서 협령 다음으로 가장 참여도가 높은 스포츠로 되었다.

축구라는 스포츠 활동에 담겨진 가장 큰 사회적 의의는, 그 참여자의 압도적 다수가 노동자계층, 특히 공장노동자들이라는 점이다. 니나 타운에 소재한 두 개의 축구클럽 중 역사가 보다 오래고—다른 하나는 여기서 갈라져 나온 것임—규모도 보다 큰 클럽의 사회계층별 회원구성을 나타내는 <별표 7>은 앞서 본 다른 어느 스포츠 클럽들 보다도 월등히 높은 노동자계층, 특히 노동자 하층의 비율을 보여준다. 또 축구클럽의 회원 가운데는 비선수 회원의 비율이 웰트스포츠클럽이나 럭비클럽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노동자계층이 클럽의 압도적 다수를 이룬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즉, 축구클럽을 포함, 팀스포츠에 대한 노동자계층의 참여는 자신들이 직접 선수로 뛰는 젊은 시절이 지나면 급속히 줄어드는 일반적 경향의 반영인 것이다. 한편 종교적 구성을 살펴보면, 축구가 한때 영국인의 스포츠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 역사상 전혀 신교도라고는 없었던 것은, 축구가 기원지인 잉글랜드에서부터 노동자계층과 밀접히 연관되었던 반면에, 니나 지방의 신교도들은 대부분이 상류층 혹은 중산 상층에 속하면서 럭비를 선호해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8) 스쿼시클럽

축구 이외에도 1960년대 이후 니나 지방에 도입된 스포츠 가운데 피치 앤 퍼트(pitch & putt)—일종의 미니 골프—배구, 농구 등과 더불어 현재 상당수의 참여자를 가지는 것으로 스쿼시가 있다. 그런데 축구와는 반대로 스쿼시는 중산층이 주로 애호하는 스포츠로 정착되었다. <별표 8>에 나타난 스쿼시클럽의 회원구성은 이를 뚜렷이 보여 준다. 특히 스쿼시는 교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아서, 교사들이 전체 회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9) 신교도들 사이에서의 배트민턴과 탁구

니나 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신교도 회관 내에서 행해지는 배드민턴과 탁구는 전혀 신

교도들만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이다. 중부지방의 신교 교회들간에 리그가 있어 상호 방문하면서 경기를 가지며,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과회 등을 가지면서 지리적으로 카톨릭교도들에 비해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신교도 소수파(minority) 구성원간에 사교의 장이 마련된다. 신교도 회관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니나 타운에 사는 카톨릭교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스포츠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2. 선술집 및 개인 가정에서의 사교적 음주

1960년대 중반이래로 선술집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라운지 바’(lounge-bar)라는 형태가 도래하여 종래의 식료품점을 겸한 선술집들을 대체하였다. 이 새로운 형태의 선술집은 구내가 훨씬 넓을 뿐더러, ‘라운지’와 ‘바’라는 두 부분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 ‘라운지’는 구식의 식료품점 겸 선술집에 있던 ‘스넉’(snug), 즉 여성들을 위해 바 쪽에 있는 남성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마련된 자그마한 공간이 확장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라운지 쪽뿐 아니라 바 쪽에서도 여성들이 술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라운지 바의 도래와 더불어 선술집의 고객망(clientele)은 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분화되어 왔다.

주민들은 니나 타운내에 있는 선술집들에 대해 성격규정을 하면서, “중산층 선술집(middle class pub)”, “노동자계층 선술집(working class pub)”, “농부층 선술집(farmers' pub)”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성격규정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해당 선술집들의 단골 고객망의 사회적 성격이다. 즉, ‘중산층 선술집’이라했을 때, 이는 중산층의 사람만 그 집의 고객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집의 전체 고객 중에서 단골 고객의 대다수가 도시중산층 사람들임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의 선술집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통계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니나 타운 내에는 총 35개의 선술집이 있다. 이 가운데 4개는 확연히 도시중산층과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1개는 도시중산층적 성격이 짙으면서도 노동자계층 및 농부들을 상당수 단골로 확보하고 있다. 후자의 선술집은 타운 내에서 가장 ‘인기좋은’(popular) 선술집으로 흔히 꼽힌다. 이 선술집이 니나 켈트스포츠클럽 회원들을 사이에서 가장 애호되는 선술집일 뿐더러, 아일랜드의 최대정당인 ‘피아나 포일(Fianna Fáil)’의 지부와도 긴밀히 연관된 곳이라는 사실²⁴과 이 선술집이 누리는 인기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다른 4개의 선술집 중 2개는 니나관 ‘여피족(yuppies)’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그 단골 고객층은 주로 젊은 전문직 및 화이트칼라직 종사자로서 스포츠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다. 테니스, 골프, 스쿼시클럽 회원의 많은 수가 이 두 선술집의 단

²⁴ 니나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현재 아일랜드 농무부 장관인 오케네디(O'Kennedy) 씨는 선거구 관리의 일환으로 2주일에 1회 정도 꼴로 이 선술집의 한 구석에 임시사무소를 열고 선거구민들의 ‘고백’(confession), 즉 자신들이 관계된 어떤 일—예컨대 공공임대주택에의 입주—에 대해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원을 듣는다.

골을 이룬다. 다른 2개의 선술집은 보다 나이가 많은 층 혹은 스포츠에 덜 열광적인 사람들에게 애호된다. 그 중 하나는 타운 내의 선술집들 중 가장 고급스런('posh') 곳으로 간주된다. 이 선술집은 연극회, 오페라그룹, 문필가모임 등 예술단체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선호되며, 골프 및 럭비클럽의 장년층 회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이 선술집은 아일랜드의 제2정당으로 흔히 중산 상층의 정당으로 간주되는 '파네 게일(Fine Gael)'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주인이 당 지부의 핵심멤버임—니나 지방의 신교도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선술집이기도 하다. 신교도들은 타운 내의 선술집들을 단골로서 찾지는 않지만, 가끔씩 선술집을 찾을 때는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이 지난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한 분위기가 주된 매력이라고 한다. 이들 중산층 선술집들이 지난 공통적 특질의 하나는 생음악 연주라든가 당구대 등과 같은 추가적 여흥거리가 없다는 점이다. 고객들은 다른 것들에 주의가 홀트러짐이 없이 대화를 즐기고자 이들 선술집을 찾는다.

타운에는 카톨릭 농부들을 단골로 하는 선술집이 7개 있다. 그 중 2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구식 선술집, 즉 식료품점을 겸한 선술집이다. 다른 3개는 입지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즉 가축시장(livestock mart)에 인근해 있어, 매주 화·목요일에 소와 양의 경매가 열릴 때 가축시장에 온 농부들이 편히 들르는 선술집들이다. 이들 농부층 선술집들에도 추가적 여흥거리는 없다.

10개의 선술집은 성격에 있어 뚜렷이 노동자계층 선술집이다. 이 중에 네 곳에서는 주말마다 생음악 연주회가 있어, 그때면 손님으로 매우 북적거린다. 다시 그 중 두 곳에서는 생음악 연주 중에 상당액의 경품이 걸린 추첨도 행해지는 데, 경품 중 일부는 선술집 주인이 제공한 것이다. 네 개의 선술집에는 당구대와 닉트경기 표적판(dart board)이 있다. 추가적 여흥거리가 있는 이들 노동자계층 선술집은 그 단골 고객들에게 있어 옛날의 회원전용 사교클럽에 조금은 유사한 다목적 사교클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네 곳의 노동자계층 선술집에는 아무런 추가적 여흥거리가 없는데, 이곳들은 중·노년층이 단골고객의 주축을 이룬다. 세 곳의 노동자계층 선술집은 니나 타운의 두 축구클럽 회원들에 의해 애호되는 곳이며, 그 중 하나는 럭비클럽의 노동자계층 출신 회원들에 의해 애호되는 곳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계층 선술집에서는 웰트스포츠가 주요 화제거리가 된다.

4개의 선술집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층 고객망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선술집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말에 생음악 연주가 열린다. 젊은 층 선술집의 도래는 새로운 양상으로, 주민들은 젊은 층을 고용하기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는 외국 공장들의 도래가 이 현상을 나타낼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외에도 3개의 호텔 바와 1개의 쇼핑센터에 부속된 선술집이 있다. 후자는 쇼핑센터가 열리는 동안에만 영업하며, 단골이란 없다. 호텔 바의 경우는 주중과 주말에 고객 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데, 주중에는 호텔에 투숙하는 여행객들이나 호텔에서 회합을 갖는 각종 단체의 회원들이 이용하게 되어, 중산층이 주축을 이루는 반면, 주말에는 생음악 연주 및 심야 디스코를 찾는 노동자계층을 포함한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룬다. 호텔 바

의 경우에도 단골망은 형성되지 않는다.

나머지 5개의 선술집은 조사기간 중 일어났던 사업주 교체 혹은 수집된 정보의 부족으로 고객망의 성격을 판별하기가 곤란하다. 이 외에도 골프클럽 및 럭비클럽에 있는 바와 니나 타운 주위에 있는 마을들에 위치한 선술집들이 있다. 후자 중에는 주말에 생음악 연주가 열리는 곳들이 있는데, 중산층 사람들이 생음악을 즐기고자 할 때 찾는 장소로 기능한다.

선술집 고객망의 위와 같은 분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술값은 요인이 되지 못한다. 선술집들 간의 술값의 차이는 무시해도 좋은 정도이다. 또 아일랜드인들은 안주를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안주값의 차이가 술집간의 고객망 분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도 않는다. 반면, 물리적 면모들—실내의 구조, 가구의 유형, 벽그림, 조명 따위—은 한 요인이 된다. 상이한 실내 디자인은 상이한 유형의 개인들에게 매력을 지닌다. 또 하나는 추가적 여홍거리의 존재이다. 생음악 연주의 존재 혹은 부재, 음악의 스타일, 당구대나 다투늘이 표적판의 유무 등에 따라 상이한 고객을 끌게 된다. 바텐더, 즉 선술집주인(publican) 혹은 ‘바맨(bartender)’의 성격도 중요한 요소이다. 단골들은 혼자서 선술집을 찾는 일이 많은데, 이 경우 바텐더가 이들을 위한 주요 대화상대의 하나가 된다.²⁵ 바텐더의 배경도 중요하다. 특정의 스포츠와 밀접히 연관된 선술집의 주인이나 바 맨들은 은퇴한 혹은 현역 선수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는 단골들의 사회적 성격 자체이다. 사람들은 특정의 선술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될지를 알고 있다. 공유된 관심이나 취향으로 하여 좋은 대화상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에, 사람들은 혼자서 단골 선술집을 찾아 가는 것이다.

이들 요인들의 결합은 개개의 선술집들에 고유한 특색을 부여한다. 마치 개인처럼 선술집들도 개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니는 함축의미는,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라고 하여 반드시 같은 선술집을 단골로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특정의 노동자계층 선술집에서 같은 노동자계층이면서도 어떤 개인은 재미(‘crack’)를 느끼는 대 반해 다른 개인은 별 재미를 못 느낄 수가 있다.

특정의 선술집에 대해 단골 고객망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특정 개인이 특정 선술집 하나만을 단골로 삼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들은 서너 개의 선술집을 단골로 찾는다. 가령 헐링을 좋아하는 노동자계층의 기혼 남자가 있다고 하자. 자기 고장 헐링팀의 시합이 있고 난 일요일 오후에 그는 다른 헐링 팬들과 함께 타운의 대표적 헐링 선술집(hurling pub)을 찾을 수가 있다. 비록 이 선술집이 지난 중산층적 분위기가 자신에게 딱 맞지는 않더라도 헐링애의 공통의 관심이 다른 고객들과 어

²⁵ 아일랜드 사람들은 바텐더가 일하는 카운터 주위에 설치된 높은 의자(stool)에 걸터 앉기를 선호하는데, 특히 단골 선술집을 혼자 찾아온 남자들의 경우에 그러하다. 그 결과 선술집은 항상 카운터 주위로부터 고객이 들어 차며, 테이블들은 비어 있는데도 카운터 주위에는 선 채로 마시는 사람들까지 포함,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양상도 혼자 나타난다.

울리는 것을 가능케 한다. 시합이 없는 일요일 오후라면, 그는 자신의 처와 함께 생음악 연주가 있는 노동자계층 선술집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조용히 술을 마시는 분위기를 원한다면, 추가적 여흥거리가 없는 노동자계층 선술집을 찾을 것이다.

타운 내의 선술집의 고객망에 대한 이상의 분석에서 생겨나는 한가지 질문은, 어째서 도시중산층 선술집의 수가 노동자계층 선술집에 비해 훨씬 적은가 하는 점이다. 중산층들은 높은 자가용 보유율 덕택으로 타운 외부에 있는 선술집들을 보다 용이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한 이유가 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중산층에 있어서 상호 방문을 통한 개인 가정에서의 사교적 음주가 훨씬 잦다는 점이다.

옛날의 신사층에 있어서는 가정-즉 ‘대저택’-과 회원전용 사교클럽인 북부 티페래리 클럽만이 사교적 음주의 공간을 이루었다. 1950년대 후반 북부 티페래리 클럽이 없어진 이후 가정이 사교적 음주의 공간으로서 옛날 신사층의 후손들에게 가지는 비중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이들은 선술집에서 술마시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술집을 사교적 음주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종종 정식으로 집으로 친구를 초대하여 식사를 곁들여 술을 마신다. 이에 비하여, 중산층에 있어서는 사교적 음주가 선술집과 개인 가정이라는 두 개의 공간 사이에 배분된다. 비록 중산층의 가옥이 상류층의 가옥에 비하면 규모가 꽤 작지만, 가족 프라이버시의 확보를 어느 정도 가능케 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대개의 중산층은 6분의 1 에이커 (약 200평) 내지 1 에이커 (약 1,200평)의 대지에 지어진, 이웃집과 벽을 연하지 않은 집에서 거주한다. 중산층은 흔히 집에 술을 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고없이 방문객이 찾아 오더라도 술을 대접할 태세가 되어 있다. 또한 중산층들은, 비록 상류층에 비해 빈도는 낮지만, 친구들간에 가끔 서로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다. 반면 노동자계층에 있어서의 사교적 음주는 거의 전적으로 선술집에서 행해진다. 노동자계층의 주요 가옥 형태인 ‘테라스형’-2층으로 된 집들이 벽을 연하여 일렬로 길게 늘어선 형태-의 공공주택은 중산층의 가옥에 비해 가족 프라이버시의 확보에는 미흡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노동자계층 사이에서는 예고없이 찾아올 손님을 위해 술을 집에 비치하는 일이 드물며 서로 집으로 식사초대를 하여 술을 곁들여 음식을 먹는 일은 더욱 드물다. 예고없이 친구네를 찾아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도 술을 마시고자 할 때면 노동자계층 사람들은 대개 단골 선술집으로 함께 찾아 나선다. 즉, 중산층에 있어서 가정이 선술집, 클럽, 기타 단체활동 등을 통하여 형성된 친구관계를 다지기 위한 사교적 음주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반면에, 노동자계층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단골 선술집들에서의 우연적 조우의 잦은 반복이 노동자계층 사이에서 친구관계가 다져지는 주된 방식이다.

3. 사회계층과 종파에 따른 분리의 실재

스포츠 활동과 사교적 음주 활동의 양태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일상적 사교에 있어 오늘날은 사회계층과 종파에 따른 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배적 관념이 제한적인

경험적 타당성만을 가짐을 밝혀준다. 클럽회원 가입에 대한 규칙을 통해 신규회원을 핵심적인 기존회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사회계층 혹은 종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한정하던 과거의 관행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거에는 계층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회원이 제한되었던 사냥클럽, 요트클럽, 테니스클럽, 골프클럽 등에 오늘날은 일반 서민층도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반면 과거에는 서민층만이 참여하던 켈트스포츠클럽에 오늘날은 중산 상층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사교적 음주에 있어서도 회원전용 사교클럽들은 모두 사라졌다. 사람들은 어느 선술집에서나 자유로이 술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으며, 특정한 사회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전적으로 고객을 이루는 선술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사회계층과 종파에 따른 분리가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냥클럽, 요트클럽, 테니스클럽, 골프클럽 등은 노동자계층 회원이 전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축구클럽은 노동자계층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켈트스포츠는 여전히 카톨릭교도만의 관심사인 반면, 신교도들은 베드민턴과 탁구 등 자기들만의 스포츠 행사를 가질 뿐더러, 럭비를 제외하고는 어떤 팀스포츠에도 카톨릭교도와 더불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단골 고객망에 따른 노동자계층의 선술집과 도시중산층의 선술집, 농부층의 선술집으로의 분화는 사교적 음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사회계층간 분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사회계층과 종파에 따른 이러한 분리의 실태와 관련하여 주목할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개인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개인의 일상적 사교활동에 대한 종파라는 요인의 제약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카톨릭교도의 입장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중산 상층의 경우에 개인의 사귐 상대 중에 신교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성이 가장 크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산 상층의 다수가 사냥클럽이나 요트클럽, 즉 니나 지방의 스포츠 클럽 중 신교도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클럽들에 소속하고 있다. 또 럭비클럽도 이들에게 신교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신교도들에게는 럭비가 과거나 현재나 주된 팀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클럽 외에도 합창단, 연극회, 브리지-카드놀이의 일종-클럽 등이 중산 상층 카톨릭교도가 신교도들과 사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반면, 카톨릭 소농이나 노동자계층의 절대 다수에 있어서는 신교도들을 사귐의 상대로서 만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 이들이 참가하는 두개의 주요 스포츠 클럽인-왕왕 유일한 가입 단체인-켈트스포츠클럽이나 축구클럽들은 신교도들에 의해 기피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주목할 점은 일상적 사교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간 분리의 실태는 단순히 영국의 식민지배가 남긴 유산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일랜드에는 아일랜드가 무계급사회(classless society)라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가 국가적 수준에서 강력히 존재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성립에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은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 이념은 아일랜드 민족 내부의 사회적 분화가 지니는 의의를 최소화시키는데, 여러 차원의 사회적 분화 중에서도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부정하고자 했던 주된 것은 사회계층에 따른 분화였다. 왜냐하면 식민종주국인 잉글랜드 사회에 관하여 그들이 가장 혐오

하였던 점이 바로 사회계층에 따른 분열과 차별이 생활의 도처에 삼투해 있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 후의 아일랜드에서는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지배층의 정치적 몰락과 더불어 사회계층에 따른 문화도 기본적으로는 소멸한 것으로 상정되었으며 (O'Toole 1990), 사회계층에 따른 분리와 차별의 행태로서 현재에도 나타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구시대의 잔재에 지나지 않는, 이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니나 지방에서의 계층에 따른 일상적 사교에서의 분리양태에는 단순히 식민지 시절의 유산으로 치부되기에는 곤란한 면모들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노동자계층을 위한 스포츠로 빠르게 성장한 축구나, 짧은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사교의 장으로 등장한 스쿼시클럽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중산층 선술집의 등장, 중산층에 비해 단체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정에서의 사교적 음주를 안하는 노동자계층의 일부 사람들에 있어서 일종의 다목적 사교클럽으로 기능하고 있는 몇몇 선술집의 등장 등도 1920-30년대에는 없던 새로운 면모들이다.

세제로 주목할 점은 식민지 시절의 지배계급이었던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의 생활 양식 및 그와 연관된 가치관의 일부 요소들이 다른 계층들에로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가 가족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조이다. 앞에 언급한대로, 오늘날 중산층의 집들 중에는 옛날 신사층의 '대저택'들처럼 고유한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 이는 집이라는 것이 해당 가족에게 하나의 자기완결적 세계로서의 의미를 가짐을 상징한다.²⁶ 그리하여 이웃집과 벽을 연하지 않은 집(detached house)이 한쪽 벽을 연한 집(semi-detached house)보다, 그리고 후자가 다시 양쪽 벽을 연한 집(terraced house)보다 나은 형태로 간주되며, 가족만의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뒷뜰이 반은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앞뜰보다 크도록 항상 집이 지어진다. 또 니나 타운 내에 직장을 가진 사람 중 상당수가 배후 농촌지역에서 살면서 출퇴근하기를 선호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즉, 그럼으로써 훨씬 넓은 주거공간 및 전원적인(naturalistic)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의 생활양식의 요소가 다른 계층들에로 전파된 또 다른 예는 말과 관련된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다. 비록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상류층 및 중산 상층의 구성원들에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계층들도 소극적인 참여는 흔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타운 내에 경마 도박업소가 5개나 되는 사실이 말해 주듯이, 경마 도박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소일거리로 기능하고 있다. TV를 통해 경마나 마장마술(show jumping)을 보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소극적 참여이다. 한국인인 필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리 만큼 TV 스포츠 중계나 뉴스는 경마나 마장마술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냥클럽의 연례 '성 스티븐의 날' 사냥행사나 장애물넘기 경마대회는 일종의 지방축제로 되었다.

자녀교육의 방식으로서 기숙학교를 보내는 것에 대한 선호는 옛 신사층의 생활양식이 중산 상층으로 전파된 또 하나의 예이다. 이에 따른 부수적 결과의 하나는, 카톨릭교

26 이들 이름들은 마치 지명이라도 되는 양 전화번호부 같은 공공적 자료에도 등장한다.

도 중 중산 상층의 사람들이 기숙학교 재학 중 럭비에 대한 취향을 발전시키게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교 기숙학교 출신의 신교도 중산 상층 사람들과 럭비에 대한 흥미를 공유하게 되며, 이로써 상호간의 비공식적 사귐이 용이해진다.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의 생활양식의 수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신·구교도를 막론하고 중산 상층에서이다. 이들은 옛 ‘대저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지어진 집들에 산다. 사실상 니나 지방에 있는 옛 ‘대저택’의 다수가 현재는 중산 상층들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 중산 상층의 많은 사람들이 사냥클럽, 요트클럽, 테니스클럽 등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의 유한계급적 생활양식과 밀접히 연관되었던 스포츠 클럽들에 가입하고 있다. 일부는 옛 신사층처럼 자신들도 말을 열렬히 애호하는 사람들(horsey people)임을 자처하며, 연례 ‘왕립 더블린 협회 쇼(Royal Dublin Society Show)’—이는 식민지 시대 이래 아일랜드의 신사층 가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로 기능해 온 행사로서, 행사의 꽃을 이루는 것은 마장마술 대회이다—나 심지어는 영국서 열리는 4대 유명 경마대회를 참관하러 간다. 또, 많은 중산 상층 사람들이 자녀를 기숙학교에서 교육시키기를 선호한다.²⁷

III. 사회집단에 따른 분리의 재생산 메카니즘

지배적 담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더이상 일상적 사교의 영역에서 제도화된 사회적 차별의 수단—즉, 2차대전 이전 시기의 클럽들에서의 신규회원 가입규정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사회집단에 따른 분리의 실재를 재생산시키는 힘은 어떤 것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개인적(supra-individual)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원인들은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분리의 실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상적 사교양태에 관한 지배적 관념이 어찌 지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초개인적 원인에 기초한 설명으로 얼핏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 이유에 입각한 설명—특정 스포츠 클럽들에의 참여에 드는 비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과, 사람들은 상이한 스포츠 클럽 및 선술집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위의 위계에 대해 공유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지위에 가장 걸맞는 클럽이나 선술집을 찾는다는 식의 설명이 있겠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극히 부분적인 설명력만을 가질 뿐이며, 무엇보다도 지배적 관념이 어찌 성립 가능한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많은 행위주체들은 자신들의 스포츠 활동이나 사교적 음주활동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으로 즉,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으로 인지한다는 점이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튀스(habitus)’²⁸ 이론이 이와 관련하여 매우

²⁷ 어떤 사람들은 더블린 등지에 있는 소위 명문 기숙학교에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 몇년 전부터 예약을 해두어 이웃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설득력 있는 설명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Bourdieu 1977: 1984). 부르디외에 따르면, “특정의 유형의 환경을 구성하는 구조들(예컨대, 특정 계층의 상태를 특징지우는 물질적 생활의 조건들)은 아비튀스, 즉 영속적이며 환치가능한(transposable) 성향(dispositions)의 체계”(1977: 72)를 생산해 낸다. 아비튀스는 특정의 생활조건을 공유하는 집단들에 특수한 취향들(tastes)로서 발현되며, 이것이 해당 집단에 특수한 생활양식(life-style)을 생성시킨다(1984: 170-3). 그리하여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은 유사한 유형의 주택이나 가구, 의복, 그림 등등으로 자신을 둘러싸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이한 집단들은 자기 집단의 후대 성원들에게 자신들에 고유한 생활양식을 전승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다. 지배집단들간에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집단에 고유한 생활양식을 전 사회의 모범적(legitimate) 생활양식으로서 주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징적 투쟁(symbolic struggle)’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거기서 승리한 집단은, 생활양식의 일부로서 어려서부터 친숙했던 만큼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모범들을 본받아 실행에 옮기고자 많은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집단들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특정 시점에서의 상이한 사회집단들 사이에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분화는 ‘이전의 상징적 투쟁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로 볼 수 있다고 부르디외는 말한다(1984: 244-56).

부르디외가 제시한 이론이 지닌 약점의 하나로 본 연구와의 관련에서 지적할 것은, 개인들은 생애를 통해서 물질적 생활조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니는 합의들을 경시하고 있는 점이다. 즉, 통계적으로는 높지 않은 비율일지라도, 개인들이 계층적 위치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변화를 경험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그 개인들은 그들이 전에 속했던 집단이나 현재 속하는 집단의 전형적 패턴과는 일치하지 않는 취향들을 나타내게 된다. 조사지처럼 급속한 변형을 겪고 있는 사회들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은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이제 아비튀스 개념을 원용하여 니나 지방에서의 사회집단의 분화양태를 해석해 보자. 상이한 사회집단들은 어린시절부터의 문화화 과정의 결과, 상이한 생활양식에 대한 상이한 취향들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각 개인들은 단순히 자기의 취향에 맞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교활동의 영역을 찾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들은 사회집단에 따른 편차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계층의 분화와 연관시켜 보았을 때, 예컨대 상류층의 사람들은 사냥이나 요트, 럭비를 대단히 흥미진진한 스포츠로 느끼면서도, 대다수의 중산층 혹은 노동자계층 사람들이 매우 애호하는 헬링이나 축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를 않는다. 종파에 따른 문화와의 연관에서 보면, 대부분의 카톨릭교도가 열광적인 관심을 보이는 헬링이 신교도들에게는 전혀 흥미거리가 못된다. 종파에 따라 유치원 때부터 격리된 학교제도가 이러한 취향상의 차 이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한 개인에 있어서 사회집단에 특수한 아비튀스의 여러 층이 중첩됨으로써, 사회분화

28 이 개념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여 여기서는 부르디외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키로 한다.

의 특정 차원에서 정의된 사회집단에 속하는 개인들간에도 취향에 있어 상당 정도의 편차가 생겨나며, 그에 따라 사교행태에 대한 구조적 결정요인과 실제 행위양태 간의 관계는 기계적 인과가 아닌 통계적 인과관계로 된다. 예컨대, 신교도 농부들은 비록 농사일이나 전원생활에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은 카톨릭 농부와 공유하면서도, 카톨릭교도들의 사교에서 주된 화제인 웨일즈포츠나 아일랜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 타운 내의 농부층 선술집보다는 가장 코스모폴리탄한 선술집으로 간주되는 도시중산층 선술집을 찾게된다. 한편, 왓킨스(Watkins)란 인물의 예에서 우리는 생애 동안의 물질적 생활조건의 변화가 취향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60대의 니나 토박이로 도로청소부인 그는 노동자계층이면서도 농부층 선술집의 하나를 단골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그가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농업노동자로 일했던 배경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가족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조와 그 부수물로서의 전원생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또 말과 관련된 스포츠에 대한 전 계층의 애호 등은 앵글로 아이리쉬 신사층이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모범적 생활양식으로 주창하기 위한 상징적 투쟁에서 거둔 부분적 성공의 반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들의 가치관의 적어도 일부가 다른 집단들에게로, 특히 카톨릭 중산 상층에게로 수용되었다는 점이 여전히 옛 신사층의 후손들에게 '상류층'의 지위가 부여되게 하는 부분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비튀스의 작동, 즉 상이한 사회집단에 속하는 결과로 개인들이 형성하게 되는 상이한 생활양식에 대한 취향들의 자발적 추구가, 일상적 사교활동의 영역에서 사회계층 및 종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분리를 행태적 실재(behavioural reality)로서 재생산시키는 주된 메카니즘이다. 동시에, 상이한 취향들의 추구가 갖는 개인 수준에서의 자발성의 외양이 사회적 차별을 목적으로 존재하던 제도화된 수단들의 소멸과 결합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테에는 사회계층이나 종파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사회집단의 분리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지배적 관념이 지탱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Bloch, Marc

1986 『봉건사회 (II): 계급과 통치』 (한정숙 역), 서울: 한길사.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translated by R. N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translated by R. Nic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Census of Ireland. 1841-1986, Dublin: Central Statistics Office.

- Cole, John W.
1977 "Anthropology Comes Part-Way Home: Community Studies in Europ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6: 349-78.
- Collard, Anna
1989 "Investigating 'Social Memory' in a Greek Context", in E. Tonkin, M. McDonald & M. Chapman (eds.), *History and Ethnicity*. London: Routledge.
- Connerton, Paul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field, Penelope J.
1991 "Class by Name and Number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in P.J. Corfield (ed.), *Language, History and Class*. Oxford: Basil Blackwell.
- Crossick, Geoffrey
1991 "From Gentlemen to the Residuum: Languages of Social Description in Victorian Britain", in P.J. Corfield (ed.), *Language, History and Class*. Oxford: Basil Blackwell.
- Foster, Roy F.
1989 *Modern Ireland, 1600-1972*. London: Allen Lane.
- Furbank, P.N.
1985 *Unholy Pleasure, or, The Idea of Social Cla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leeson, Rev. John
1982 *History of the Ely O'Carroll Territory, or Ancient Ormond*. 2 Volumes. Kilkenny: Roberts' Books.
- Hargreaves, John
1986 *Sport, Power and Culture: A Social and Historical Analysis of Popular Sports in Britain*. Cambridge: Polity Press.
- Hwang, Ik-joo
1992 *Class, Religion, and Local Community: Social Grouping in Nenagh, Republic of Ireland*. Ph. D. thesis, University of Oxford.
- Lyons, F.S.L.
1973 *Ireland since the Famine*. London: Fontana Press.
- Marwick, Arthur
1990 *Class: Image and Reality: In Britain, France, and the USA since 1930*. (2nd Edition) London: Macmillan.
- Moody, T.W. & F.X. Martin (eds.)
1984 *The Course of Irish History*. (2nd Edition) Cork: The Mercier Press.

Murphy, Donal

1986 "Tipperary North Riding: A Brief History", in *Official Guide to North Tipperary*.
Nenagh: North Tipperary County Council.

Nugent, Daniel

1985 "Anthropology, Handmaiden of History?: An Answer from the Field", *Critique of Anthropology* 5: 71-86.

O'Brien, Máire & Conor Cruise O'Brien

1985 *A Concise History of Ireland*. (3rd Edition) London: Thames and Hudson.

O'Toole, Fintan

1990 "Ireland: A Class-Ridden Society?", *The Irish Times* (newspaper, Dublin), from April 2 to April 6.

Pina-Cabral, Joao de & John Campbell (eds.)

1992 *Europe Observed*. Basingstoke: Macmillan.

Sheehan, E.H.

1949 *Nenagh and Its Neighbourhood*. Nenagh: Relay.

Stedman-Jones, Gareth

1983 *Languages of Class: Studies in English Working Class History, 1832-19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ler, Hardress

1988 "The Big House", *The Guardian* (newspaper, Nenagh). Dec. 24 (150th Anniversary Supplement).

〈별표 1〉 사냥클럽 회원의 사회계층별 구성

사회계층	회원수 (%)
상류층	이 5 (12.8)
중산 상층	16 (41.0)
중산 하층	2 (5.1)
농부층	16 (41.0)
노동자 상층	0 (0.0)
노동자 하층	0 (0.0)

〈별표 2〉 더그호 요트클럽 회원의 사회계층별 구성

사회계층	회원수 (%)
상류층	21 (11.3)
중산 상층	103 (55.4)
중산 하층	35 (18.8)
농부층	21 (11.3)
노동자 상층	4 (2.2)
노동자 하층	2 (1.1)

〈별표 3〉 테니스클럽 회원의 사회계층별 구성

사회계층	가족회원 (%)	개인회원 (%)
상류층	0 (0.0)	0 (0.0)
중산 상층	26 (47.3)	9 (20.5)
중산 하층	27 (49.1)	27 (61.4)
농부층	1 (1.8)	4 (9.1)
노동자 상층	1 (1.8)	3 (6.8)
노동자 하층	0 (0.0)	1 (2.3)

〈별표 4〉 골프클럽 회원의 사회계층별 구성

사회계층	가족회원 (%)	개인회원 (%)
상류층	0 (0.0)	1 (0.4)
중산 상층	46 (39.0)	58 (23.0)
중산 하층	62 (52.5)	153 (60.7)
농부층	4 (3.4)	13 (5.2)
노동자 상층	5 (4.2)	25 (9.9)
노동자 하층	1 (0.8)	2 (0.8)

〈별표 6〉 럭비클럽 회원의 사회계층별 구성

사회계층	비선수 (%)	선수 (%)
상류층	0 (0.0)	0 (0.0)
중산 상층	23 (31.5)	5 (14.7)
중산 하층	28 (38.4)	9 (26.5)
농부층	9 (12.3)	3 (8.8)
노동자 상층	8 (11.0)	8 (23.5)
노동자 하층	5 (6.8)	9 (26.5)

〈별표 5〉 니나 킱트스포츠클럽 회원의 사회계층별 구성

사회계층	비선수 (%)	선수 (%)
상류층	0 (0.0)	0 (0.0)
중산 상층	12 (16.9)	3 (9.1)
중산 하층	21 (29.6)	13 (39.4)
농부층	2 (2.8)	3 (9.1)
노동자 상층	26 (36.6)	8 (24.2)
노동자 하층	10 (14.1)	6 (18.2)

〈별표 7〉 니나 축구클럽 회원의 사회계층별 구성

사회계층	회원수 (%)
상류 총	0 (0.0)
중산 상층	1 (2.6)
중산 하층	6 (15.4)
농부 총	1 (2.6)
노동자 상층	11 (28.2)
노동자 하층	20 (51.3)

〈별표 8〉 스퀴시클럽 남자회원의 사회계층별 구성

사회계층	회원수 (%)
상류 총	0 (0.0)
중산 상층	11 (18.0)
중산 하층	30 (49.2)
농부 총	11 (18.0)
노동자 상층	8 (13.1)
노동자 하층	1 (1.6)

Everyday Social Mixing and Social Group Differentiation in Ireland: An Anthropological Case Study

Ik-joo Hwang

This is an anthropological case study of the way social group differentiation manifests itself in everyday social mixing in Nenagh, Republic of Ireland. The dominant discourse in Nenagh area claims that social mixing is nowadays conducted simply according to personal tastes and choices and that there no longer exists social segregation by such structural variables as social class or religion, as was the case in the olden days. Such a view, however, corresponds with the empirical reality only in a limited sense, and there exis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gree of social segregation by social class and/or religion, as this study shows in reference to patterns of participation in various sporting

clubs and social drinking in pubs and private homes. The main mechanism involved in the reproduction of social group differentiation in everyday social mixing behaviour despite the disappearance of the institutionalized means of social segregation is, it is argued, the formation of different tastes for different life-styles between different social classes or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황익주, 강원대학교 인류학과 전임강사

주소 :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Tel : (0361) 50-6875(O), (0361) 261-3902(H)